

경제

■ '고졸신화' 장인수 오비맥주 시장 광주 간담회

선물, 중저가 '대세'

유통업체 실속형 세트·소액 상품권 등 인기 백화점, 10만원대 매출 전년보다 20% ↑

대의 불황실세 확대로 인해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 우려가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출은 처음으로 석 달째 동반 감소했고 신용카드 지출마저 한자릿수 증가율로 떨어졌다. 지역백화점들의 추석선물 세트도 10만원대 실속형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20만원대 상품이 주를 이뤘던 추석선물이 올해는 10만원대로 떨어졌다.

상대적으로 줄었다고 백화점 측은 설명했다. 현대백화점 광주점도 10만원대 선물세트의 매출 비중이 지난해보다 약 20% 포인트 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역 백화점들은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추석선물세트 행사에서 10만원대 실속형 선물세트 품목과 물량을 지난해보다 대폭 늘릴 방침이다. 거래처에 선물을 하기 위해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기업(법인)들이 불황으로 소액 상품권을 많이 찾으면서 백화점들도 소액 상품권 판매에 집중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경우 지난해는 30만~50만원권 상품권 패키지가 잘 팔렸지만 올해는 5만·10만원권 소액 상품권 패키지가 인기를 끌고 있다.

보통 백화점 선물세트는 20만원대가 인기상품이지만 올해는 10만원대 선물세트가 잘 팔리면서 20만원 이상 선물세트 매출 비중은

9일 광주신세계 백화점이 지난 달 31일부터 시작된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매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만원대 중저가 선물세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포인트 늘면서 전체 사전예약 매출의 2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다"며 "불황기를 맞아 선물세트 구입에 가격 거품이 빠지고 실속형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백화점은 예년보다 고액 상품권 물량은 40% 줄었고, 소액 상품권 패키지 물량은 60% 늘렸으며, 신세계백화점도 추석에는 처음으로 소액 제품인 10만원대 '슬림 상품권 패키지'를 내놓았다.

또 현대백화점은 주력 상품이었던 3000만원짜리 패키지를 앞에는 대신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등 세 가지 상품만 판매한다. 대형마트에서도 '중저가'와 '실속형' 추석선물이 잘 팔리고 있다. 광주지역 이마트 5개점(광산·광주·동광주·봉선·상무)에서도 추석선물세트 예약 판매 현황을 살펴본 결과 9900원에서 1만원대 참치세트, 2만~3만원대 사과·배 일세트, 5만원대 국거리용 딸치세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는 9만9000원짜리 한우 실속세트가 높은 인기를 끌었지만 올해는 5만원대 미만 선물세트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이마트 측은 설명했다. 이은미기자 emlee@

“광주공장, 영호남 생산거점으로 확장”

내년 75억 투입...양조설비·물류센터 확장 광주FC 후원·인재육성 등 사회공헌 강화

“광주공장을 영호남 생산거점으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주류업계 ‘고졸신화’로 유명한 장인수 오비맥주 사장이 7일 취임 후 첫 광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광주공장은 경기, 인천, 충북 청원 등 오비맥주 3개 공장 중 생산능력이 가장 낮지만 생산량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물류시설을 확충해 중장기적으로 광주 뿐 아니라 영호남 전역에 제품을 공급하는 남부지역의 생산전진 거지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카스와 OB골드라거 등

광주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호남 뿐 아니라 부산 등 영남지역에 공급할 경우 인천이나 청원 등 다른 공장 소재지에 비해 지리적 이점과 물류의 효율성을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출시한 OB골드라거가 광주시민들의 사랑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는 등 최근 남부 지역에서 오비맥주 성장곡선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며 “광주지역의 대표적인 한도기업으로서 지속적인 시설투자와 고용창출을 통해 ‘내 고장 맥주’의 저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비맥주는 남부지역의 성장세와 수요증가에 맞춰 지난해 광주공장에 120억원 규모의 캐나인을 증설한 데 이어 내년에는 75억원을 투입해 대구

로 양조설비를 추가 설치하고 물류센터를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

영업전략에 대해서는 “영업총괄 부사장 시절부터 강조한 지역별 ‘맞춤형영업’과 소비자 ‘밀착영업’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광주 무등구장에서 카스맥주와 OB맥주를 판매하고 광주 FC구단을 후원하는 등 지역특화마케팅에 더욱 힘쓰고 있다”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등 통해 지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사회공헌 활동에도 더욱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사장은 순천출생으로 대경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0년 진로입사, 영업담당을 시작으로 하이트주조·주정 대표이사, 2010년 오비맥주 영업총괄 부사장을 역임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9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지하 1층 생활 매장에서 친환경 생활용품 브랜드인 '에코디고'가 첫선을 보였다. 13일까지 판매행사를 갖는 '에코디고'는 행사수익금의 일부를 태풍 피해를 입은 광주·전남 지역민들에게 기부한다고 밝혔다. <주광주신세계 제공>

제수용품 원산지 단속 관세청 28일까지

관세청은 추석을 앞두고 조기(굴비), 쇠고기, 돼지고기 등 제수의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한다. 특별단속 기간은 10일부터 28일까지다.

관세청은 이 기간 분부세관과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 전국 41개 세관, 45개 관, 245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단속대상은 굴감, 조기(굴비), 갈치, 오징어, 버섯, 쇠고기, 돼지고기, 제기음료 등 제수 일체다. 특히 저가의 수입물품을 고가의 지역특산품으로 위장해 소비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 중점 단속된다.

관세청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전국 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등 단속품목별 생산자단체와 정보교환 등 협력체계를 운영하고 물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원산지표시 단속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합동단속을 벌인다. 단속대상품목에 대해서 수입업체,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유통경로별 원산지 표시를 추적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해당 물품에 대한 보세구역반입명령(recall), 과징금 부과(최고 3억 원), 형사조치 등을 통해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추석 알바’ 11% 줄어

불황에 ‘추석 알바’도 줄었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해 추석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1만 4000여명의 단기 근로자를 고용해 선물 상담, 포장, 배송 등의 업무에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추석보다 11% 가량 줄어든 것이다. 백화점은 불황에도 대체로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는 데 비해 영업규제로 이종고를 겪는 대형마트는 고용 인원을 대폭 줄였다. 롯데백화점은 14~29일 진행되는 ‘추석 선물세트 행사’에 6500여명의 단기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추석과 비슷한 수준으로, 점포 규모에 따라 150~300명

을 채용하며 본점은 800명을 모집한다. 시급은 5000~5500원 수준이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보다 400여명 늘어난 2000여명을 단기 채용한다. 선물 판매 추이를 지켜보면서 100~150명을 추가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배송 업무에 투입할 1000여명 가운데 절반을 30~40대 주부로 채용 방침이다.

이들은 하루 5~6만원 가량을 받게 된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추석행사에 1000여명을 단기 고용한다.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것으로 신세계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연합뉴스

이마트는 추석 행사에 지난해보다 25%를 줄여 2000여명을 모집한다. 홈플러스는 단기 아르바이트 1300여명을 모집할 계획으로 3000명을 뽑았던 지난해 추석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홈플러스는 단기 근로자에게 시급 4700~5600원을 지급한다.

농협유통 역시 단기 근로자 고용 규모를 줄였다. 하나로마트와 하나로클럽에서 근무할 단기 근로자를 총 4300명을 뽑는다. 이는 620여명을 채용했던 작년 추석보다 30% 가량 줄어든 것이다. 이들에게는 시간당 6500~80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광주 전통시장, 대도시중 가장 저렴

전국 7대 특별·광역시 중 광주지역 전통시장의 물가가 가장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장경영진흥원이 매주 전국 전통시장 물가조사를 한 결과, 광주지역 전통시장의 물가가 지난 8월 첫째 주 이후 9월 첫째 주 5주째 전국 대도시 전통시장 중 가장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경영진흥원은 전통시장 홍보

를 위해 지난 7월 1일 이후 전국 36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16개 대표품목(야채 5·과일 2·육류 4·어류 5)의 가격을 각각 조사, 평균화해 물가 순위를 매겨 매주 발표하고 있다.

이달 첫째 주 전통시장 물가는 울산이 가장 비쌌고, 인천·서울·대구·대전·부산·광주 순이었다. 또한, 지난 6월 12일과 8월 20일 시장경영진흥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

면 생활필수품 36개 품목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 보다 저렴해졌고, 특히 김과 멸치는 35% 이상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 분급주 경제산업과장은 “우리 지역 전통시장 물가 가격 대도시 전통시장 중 가장 저렴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시민이 전대전·부산·광주 순이었다. 또한, 지난 6월 12일과 8월 20일 시장경영진흥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

Large advertisement for Lotte Department Store (롯데제이티비) featuring various travel packages, gift sets, and promotional offers. Includes sections for '무안출발 풍경', '장가계 직항 전세기', and 'LOTTE CARD로 해외여행가고 최대 10%~7% 할인 받자!'. Lists various travel packages to Japan, Europe, and other regions with prices and details.